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시드니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6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루카11,10)

2014년 4월 1일 (월간)

사순시기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는 40일간의 정화와 회개의 시기를 보낸 후, 가장 거룩한 성삼일을 통해 부활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에서 부활 성야에 홀로 밝혀지는 부활초는 거룩함의 정점이고,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상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또 ‘그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실제적인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순 시기 봉독되는 말씀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 복음 말씀을 시작으로, 매 사순시기 이어지는 주일 복음말씀, 그리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복음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으로의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악의 유혹과 당신의 거룩한 변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태생 소경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 끝으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당신께서 메시아 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십자가 또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악마의 달콤한 유혹이,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 계속해서 당신을 배척만 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곳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높은 곳에 매달려 모든 이가 바라 볼 수 있는 장소,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이가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관문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다리입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웃 안에서, 또 내 자신 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유혹, 고통, 아픔, 상처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아픔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도망가고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를 마주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넘어지셨다 가도 세 번을 다시 일어나시어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셨듯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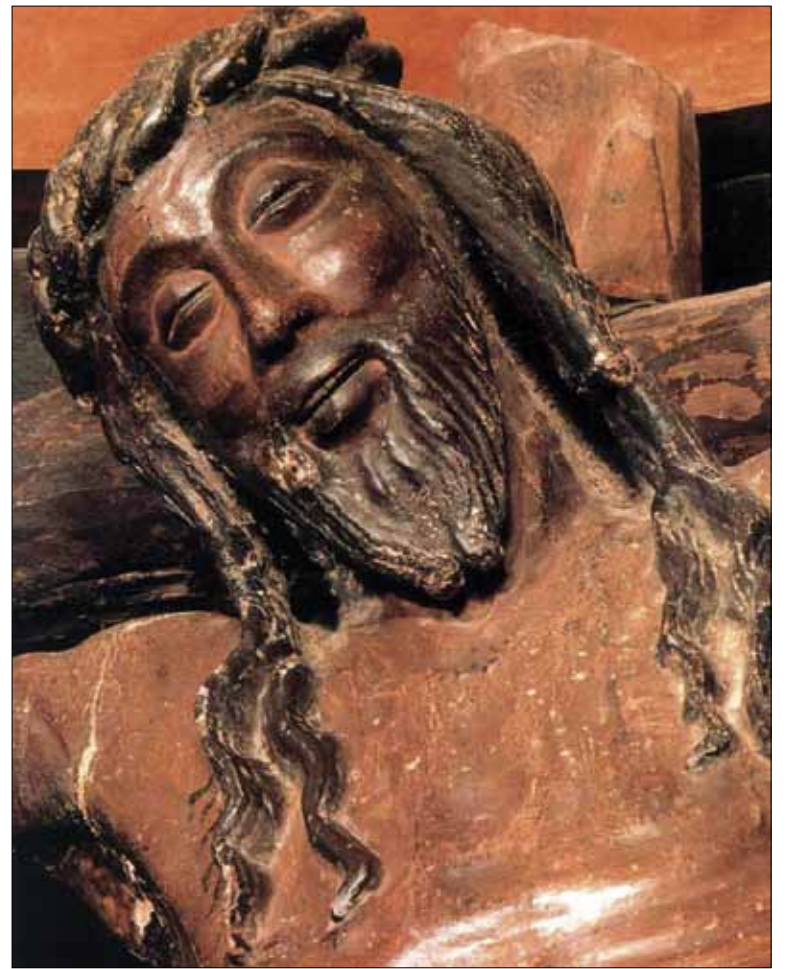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어렵다면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잘잘못을 끝까지 따져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소위말해 정의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먼저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의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갈 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정의도 그 안에서 빛을 낼

것입니다. 절대 십자가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느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안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상태, 즉 부활의 몸은 일반적인 육신의 소생이 아닙니다. 또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셨다면 그 몸은 다시 썩어 없어질 제한적인 육신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그 어떠한 이성과 논리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이제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새로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과 마음 모두 단려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새로운 힘을 부여하시고 시간과 장소적 한계라는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시게 됩니다.(참조: 루카 24,13-49; 요한 20,19-23)

스승님의 비참한 최후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제자들, 그로 인해 실망과 절망이라는 마음이 그들을 엄습해 와 모두 꼭꼭 숨어버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였는지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사건이라기보다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때로는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놀라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내놓는 자세가 서서히 모두의 단려있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 십자가 위에서 웃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서는 부활의 영광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죽이는 삶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진정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주님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 부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시기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헛된 욕망과 허영심을 비우는 정화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하여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 자기 내어준의 완성인 주님의 부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노호영(미카엘)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창조

무슨 일이든 이루어내려면 그 일의 최초 상태로 돌아가 그 전철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견고하고 새로운 그 어떤 것도 창조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

인간의 의식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대화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 일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선(요셉) 주임 신부의 서품25주년 은경축 및 영명 축일 행사 열려

지난 3월 16일 주일, 임기선(요셉) 주임 신부는 본당 부임 이후 뒤늦은 은경축일과 영명축일 축하를 받고 교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축하식에서 사회자는 “신부님의 은경축일은 2월 13일이었으나 이날 본당으로 부임하기 위해 비행기 안에 계셨던 지라 오늘 신부님의 영명축일과 함께 은경축을 교우들과 뒤늦게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두 축일이 병행해 열린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당 사목위원의 말에 의하면 “주임 신부님께서서는 본당 부임 직후 은경축 행사를 실시하면 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 당신의 은경축일에 본당에 부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제서품 25주년이 되는 해를 아무런 축하없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하다는 교우들의 요구로 이날 요셉 축일과 함께 은경축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임 신부는 이날의 축하식에서 “이미 은경축일은 지났는데 이를 잊지 않고 축하해줘서 감사 드리고 동시에 죄송할 따름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겠



습니다”라는 소감으로 축하식의 답사를 대신했다. 한편 주임 신부는 이날 사순 제2주일 미사 강론에서 “사순시기는 우리 모두가 현재의 단일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에 대해 설명한 다음, “늘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르나 이를 참고 인내하면 전쟁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재물과 명예, 자존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한 변화인데 그 변화의 시작엔 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함께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자”고 신자들을 복돋았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레지오 아치에스(Acies)행사 열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성모님께 대한 단원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본당 아치에스 행사가 레지오 주관으로 주일인 3월 23일에 열렸다. 아치에스는 총사령관인 성모 마리아

께 대한 레지오 단원들의 ‘봉헌 사열식’이다. 레지오 조직에서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매년 성모님께 대한 단원들의 봉헌 사열식을 갖는다.

아치에스(Acies)는 라틴어로서 ‘전투대형으로 늘어선 군대’라는 뜻이다.

임기선(요셉) 주임 신부는 훈화를 통해 “레지오 단원은 군대로 치면 특전사급 군인”이라고 설명하며 특전사 군인이되려면 고된 공수특전 교육을 거쳐 특전 사령관 앞에서 군인이 되는 선서식을 하듯 레지오 단원은 주일미사는 물론 소공동체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원으로서 총사령관인 성모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비추어라’

프란치스코 교황, 8월 14-18일 방한,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 · 시복식 거행
(본보 2014년 1월호 2-3면 참조)



▲ 25년 만의 교황 방한은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의 복음화와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평화의 사도’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18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이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두번째 방한 이래로 약 25년 만에 세번째 교황 방한이라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됐다. 특히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교황의 임기 중 아시아에서 처음 이뤄지는 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를 격려하는 동시에 아시아 대륙 전체의 복음화에 더욱 힘써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0일 오후 8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교들의 초청을 받아들

여, 대전교구에서 치러지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시고자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을 사목 방문하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황청도 같은 시각(현지 낮 12시)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의 방한 기간에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해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미사를 봉헌하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주례하고 △장애훈행인 공동체인 꽃동네를 방문하고 수도자와 신자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리고 명동대성당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 집전을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마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주요일정

날 짜	행 사	장 소
8월 14일 (목)	박근혜 대통령 예방 한국 주교단과 만남	청와대 주교회의
8월 15일 (금)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아시아 청년 대표단과 만남 아시아 청년들과 문화 프로그램	대전월드컵 경기장 대전가톨릭대 솔빛성지
8월 16일 (토)	순교자 124위 시복식 꽃동네 방문 수도자들과 만남 평신도사도조직단체 대표들과 만남	서울 음성 꽃동네 음성 꽃동네 음성 꽃동네
8월 17일 (일)	아시아 주교단과 만남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 미사	해미성지 해미성지
8월 18일 (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로마로 출국	명동대성당

베데스다 천연 건강즙
정성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한끼 식사값으로 가족의 **한달 건강**을 챙기세요
베데스다는 無설탕 無방부제 無색소 원칙
오직 호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을 사용합니다.
시드니 전지역 배달가능합니다.
2 Wallace St Sefton 2162
9786 4945 / 0425 677 878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영양돌솥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육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원칙주의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월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락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아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십자가의 멍청함에 눈뜨면 인간관계 회복’

한상용(디도) 신부, 사순특강 ‘성가정이 자녀 교육의 첫 걸음’

한상용(디도) 신부는 지난 2월 말까지 10년간 원주교구 소속 진광중 고교의 교장으로 지내다 지난 2월 퇴임 후 6개월 간의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그러기에 한 신부는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주 3일간 본당의 사순특강에서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21세기 한국가톨릭 신앙인이 묵상하고 풀어야 할 화두가 인간생명의 존엄성 및 영적 교육의 회복, 성가정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에서도 물질 숭배위주의 가정교육에서 환골탈태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가정에서의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 한 학교나 사회교육도 이와 맞물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가톨릭 신앙인이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식탁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도하라고 주문한다. 이런 예화도 들었다. 한 신부의 ‘갈비론’이다. 어린 자녀들과 맛있는 갈비를 먹을 때 부모들은 애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권하지 ‘너는 커서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더 먹어야 되겠다’고 말할 부모들이 없지 않느냐며 신앙교육도 이와 같다고 언급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갈비를 더 먹도록 권하는 것 같이 자녀가 유년시절부터 신앙을 먹고 그 자양분으로 성장하도록 성가정의 바탕을 만들라는 당부다. 한 신부가 본지 초대석에 응했다.

- 사순절입니다. 본당 신자들에게 맨 먼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날 특강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멍청함, 바보스러움에 눈을 떠 이웃을 보다듬는 사랑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간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위대함과 비참함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공존할 수 밖에 없죠.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같이 나약하고 때로는 멍청하고 부족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느님을 우르려 보는 신앙이 싹트는 것이죠.”

십자가는 잘 난 척 하고 싶은 인간들에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바보스럽게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는 그 가르침의 표상이다. 남의 단점을 드러내고 비판하기 보다 나도 그런 나약함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십자가의 길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너와 내가 허점 많은 인간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랑과 겸손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순시기에는 이같은 십자가의 바보스러움을 묵상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단련의 시간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드니 한인성당의 신자 수가 많고 외적인 건물의 번듯함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함이 신자들에게 없다면 외형적인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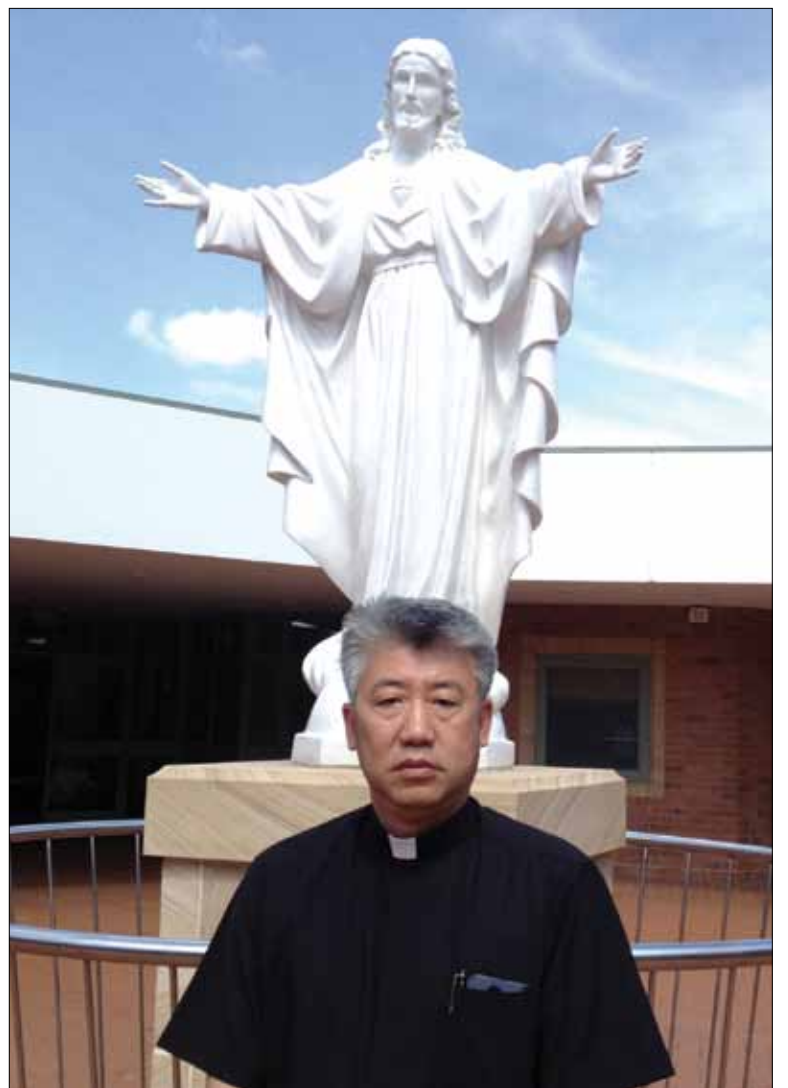
- 요즘 학교에서의 스승에 대한 학생들의 무례함을 비롯 인성교육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의 빈곤이 만들어 낸 부작용이 아닐까요?

“제가 10년간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일선학교에 몸 담았던 신부라 그런 소릴 들을 때 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정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학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소속 사회에 악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의사가 되고 판, 검사가 되라는 식의 물질지향적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란 이런 가정교육에서 벗어나 예의 범절을 더 강조하고 밥 한끼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충실 한다면 학교 교육도 제자리를 찾고 더 나아가 사회, 국가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한국 가톨릭 신앙인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성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월드 와이드 메리지 인카운터 (Marriage Encounter) 한국협의회 대표로 역임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엠이(M.E.)’ 교육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부부상 정립이 가정교육의 근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엠이 교육



때나 신혼부부를 만나면 신혼서약 때의 맹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간직한다면 부부간의 다툼이나 불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기 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존중이 지켜지면 성가정은 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먼저 부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상대의 마음을 듣는 열린 귀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상대의 말을 끊기에 앞서 ‘그렇군요’ ‘맞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보다 들을 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나의 입장과 주장만 앞설 때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담: 박병태 이나시오 편집고문)

패밀리 데이케어
Croydon • Newington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 및 영어 교육
★ 가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수, 과학, NIE
★ 음악 · 미술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 간식 · 점심 제공 센터링크 보조(CCB,CCR) **대상연령 3세~취학전 아동**
전화 문의: 0422 647 515 (Croydon)
0425 234 130 / 9648 2786(Newington)

NOBLE KIA TOYOTA SUZUKI
Chullora / Greenacre
한국인 컨설턴트 **에릭 리** 사도요한
★ 무료 Road Side Assistance
★ Capped Price Servicing
★ 첫 3개월 무료 서비스
★ Noble 8year Warranty
★ Conditions apply
★ Special Finance Offer 진행중
0498 888 009 elee@noblekia.com.au
8756 9871(직통) 121 Hume Hwy Chullora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헐겁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사랑을 드리고 신료받는 영원”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다.드림 Outlet
아동복 빅사이즈
여성캐주얼 미씨캐주얼
185 Beamish St Campsie
Mob: 0414 588 700 (박 멜라니아)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룡 다니엘 070 7884 7560
351A BURWOOD RD. (동서 정육점 직영)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샵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0
0430 379 269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지구협회 소식

신부님과 72 구역 장들의 식사

3월9일 일요일 성당 미카엘 방에서는 주임신부님과 72명의 구역 장들이 신부님 부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식사가 이루어졌다. 사실 미카엘 방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회의를 한적도 없거니와, 게다가 식사를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들이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서로 자리를 내어주며 겹겹이 줄을 맞춰 앉아, 여성분과에서 제공해 준 콩나물 비빔밥을 함께 맛있게 비비는 모습은 참으로 진풍경이었다.

구역 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처음 얼굴을 보고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느라 왁자지껄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주임신부님의 지도로 모임은 평정을 찾았다.

현재 호주 시드니 교구가 처해있는 구역의 어려움들을, 구역원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는 각 구역 장들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 임기선 주임신부님의 강력한 제안으로 이뤄졌다.

처음엔 먼저 말을 꺼내기 어색하여 잠깐의 침묵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지금까지 수년째 구역 장을 역임하고 계신, 70이 넘으신 구역장님의 건의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붓물 터지듯 구역 장들의 건의사항과 시드니 교구에 바라는 바람들로 회의는 그 열기를 더하여 갔다.

구역 장들이 서로 손을 들어 발표한 건의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구역 장과 같은 봉사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는 구역 원들로 인해 2년 혹은 4년의 임

기를 마치고 이임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말으려고 하지 않아 다시 연임하게 되는 고충, 교적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였으나 성당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아, 반복적인 작업을 매번 해야 하는 고충, 지역성당에서 판공을 한다는 이유로 판공 성사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고충, 월 2회 구역모임을 일일이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구역원들 때문에 겪는 고충, 성당의 다른 단체들에는 열성적이면서 구역모임에는 협조적이지 않는 구역원들 때문에 받는 고충, 지구나 구역기금의 부족으로 구역을 이끄는 데 한계를 많이 느낀다는 고충, 구역단위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방문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고충 등등... 책임의식과 신심이 없

다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임신부님께 허심탄회하게, 1시간여에 걸쳐 털어놓았다.

주임신부님 역시 봉사직의 어려움을 가까이 수락한 각 지구장 및 구역 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본당차원에서 교회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구역의 활성화와 어렵게 봉사직에 임한 구역 장들의 사기진작 및 그와 동시에 전문화를 시키는데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이번 구역 장들과의 만남은 전 구역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는 성공적인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제시될 주임신부님의 방향제시에 그 기대를 걸어본다.

(지구협회 총무 김미미 에밀리아)

한상용(디도) 신부의 사순특강

‘잘난척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본당에서는 지난3월20(목)일부터 22일(토)까지 약 사흘간 한상용 신부(원주교구)를 초청하여 사순 특강을 가졌다. 강의 중 한 신부는 십자가의 바보정신을 강조하며 “십자가는 잘난 척 하고 싶은 인간들에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바보스럽게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 놓으라는 가르침의 표상이며 사순 시기는 이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의 단점을 드러내고 비판하기보다 나도 그런 나약함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과정인 십자가의 길을 알아 차리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란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사순 시기는 이 같은 십자가의 바보스러움을 묵상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단련의 시간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드니 한인성당의 신자 수가 많고 외적인 건



물의 번듯함도 중요하지만 만약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함이 신자들에게 없다면 외형적인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진광중 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한 신부는 부부간의 존경과 사랑이 성가정 및 자녀교육의 토대라고도 강조했다.

(▶ 관련 인터뷰 기사 3면)



“갈등해소를 위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 묵상”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간혹 지나치게 열심한 신자들은 주님과 같은 고통을 느끼겠다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주님 수난의 처절함에 대해 진저리 칠 정도로 마음 아파하고 그런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수난시기의 묵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초점을 주님의 고통에만 두어 그분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요. 주님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이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한다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애도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애도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 이름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것을 묵상하면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당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

다. 때로는 내가 옳네, 네가 그르네 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듯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를 기억해주고 안타까워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이겠지요. 본당에서 아무리 큰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휘어잡았어도, 죽고 난 후에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가장 불행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일수록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리 잡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더 중요한 점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부활을 반겨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니는 성당 식구들만이라도 나의 죽음을 그리워하고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면 성공한 인생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본당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이 마치 본당의 주인인양 행세하면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부나 수도자에게까지 심리적 행패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성격적인 결함이 심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줄까, 내가 부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겨줄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공동체모임길잡이, 2012년 7-8월호에서)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창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공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보상관련(교통사고, 직장사고, 공공장소사고 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가족법(이혼, 재산분쟁, 자녀양육, 유언장), 파산법(회사정산, 개인파산) 부동산 & 비즈니스매매, 상가 임대차, 각종계약서, 주류라이센스
Suite 124, Level 6, 330 Wattle st Ultimo
T 9281 1771, F 9281 1774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출론 · 비즈니스론 · 상업용자 · 건설용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Commonwealth Bank 14년
제일은행 18년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핑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환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제이원 보석
J.W.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금 매입합니다.
T. 9763 1355 M. 0423 672 553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작은 천사 (Little Angel) 하느님의 종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8월 16일(토)에 거행될 한국순교자 124위 시복식에 맞추어 이달부터 8월에 시복 될 선조들의 순교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기고에는 오랫동안 한국 천주 교회사를 연재해 주셨던 이진원 미카엘 형제님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선조들의 순교의 삶 속에서 많은 은총 받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한국천주교회사를 다시 연재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도 답하고자 합니다. - 편집국 -

하늘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

“나이 어린 용감한 증거자를 두었다는 것은 천주교를 위하여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와 같은 옹호자를 진리에 바치는 민족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래가 약속되는 것인가”

- 성 안 다블뤼 주교 -

이봉금은 1827년 무렵 아버지 이성삼 바오로와 어머니 하느님의 종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충청도 덕산에서 무관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으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정해박해(1827년) 이후 고향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며 궁핍하게 살았다. 고모 이시임 안나는 1816년 을해박해 때에 순교하여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었고, 아버지는 1827년 정해박해 때에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큰 아버지 이성지 요한도 1827년 정해박해에 체포되어 8년 뒤인 1835년 전주옥에서 순교했다.

‘시복 청원 중인 124위 가운데 최연소자’

103위 순교 성인 중 최연소자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인데 시복 청원 중인 124위 가운데 최연소자는 누구일까? 이봉금 아나스타시아(?-1839년)의 출생 년도는 불명하나 1827년 쯤으로 보는데 1839년에 순교하였으니 12세 남짓한 어린 나이로 주님을 찬미한 것이다. 천주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삶이 바뀐 집안으로 시집은 어머니 김조이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수계하였으며 특히 여인들의 교육에 유익한 권면을 하였다. 박해로 인하여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시누이, 남편, 시숙이 신앙 때문에 생명마저 잃는 것을 지켜보면 서도 배교하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을 더한 김조이, 이러한 어머니 품에서 성장하며 훌륭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게 된 이봉금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킬 줄 알고, 천주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다. 이봉금은 귀여운 신심을 지닌 하나의 작은 천사였다. 얼마나 울고도 견실한 믿음의 씨앗을 키웠던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모두 주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습이었다.

이봉금은 열살 무렵 교리문답과 아침 저녁

기도를 배운 후 선교사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주님은 사제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이 맑은 영혼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신부님은 비록 어리지만 열심하고 조신하고 의젓함에 감탄하며 성체 모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니 주님을 모시고 이 작은 영혼이 얼마나 기뻐 용약(勇躍)하였을까? 이로부터 작은 천사의 신심과 덕행은 날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쑥쑥 자랐으리라...

‘천 번 죽어도 못해요’

그러던 중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이봉금은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의 종 홍재영(프로타시아) 집으로 피신했으나 그곳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어머니와 함께 전주로 압송되었다. 이내 관장 앞에 끌려가 심문을 받는데 서양 신부의 행방을 묻자 “저 같이 어린 게 집애가 서양 신부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지혜롭게 답변을 한다. 너무도 어린 나이이고 압전하여 관장과 옥리들은 동정하여 천주를 배반하고 욕을 하면 살려 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봉금은 “일곱 살이 되기 전에는 철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천주님을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곱 살부터는 천주님을 섬겨 왔는데, 오늘 천주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천번 죽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토록 야무진 대답을 하고 있으니 심문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무색해졌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 고문하지 않다가 온갖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 마침내 이 어린 몸에 고문을 가했다. 조망만한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서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교배주(背教背主)하고 딸만이라도 풀어 주고 싶은 것이 보통 모정이 아닐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래도 너는 고문에 못 이겨 틀림없이 배교할 것 같구나”라며 딸의 신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이봉금은 펄

쩍 뛰며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신앙을 지킬 거예요” 라고 당차게 대답했다.

‘성모님 손을 잡고’

이 해에 어머니는 사형판결을 받았다.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그 내용을 보면 “김조이는 남편에게 천주교 서적을 배웠고 서양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마음을 고칠 줄을 모르니, 참수를 하여도 오히려 죄가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참수의 월계관을 쓰기도 전에, 김조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사랑하는 딸을 혼자 남겨 두고 1839년 10월 나이 50세에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다. 어머니가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감옥에 혼자 남은 어린 이봉금! 고통으로 전신이 바스러져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는데---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을까? 이제 의지할 데조차 없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천주 안에서 힘을 얻고 끝까지 자신의 영웅적인 결심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옥사장은 이제 배교할 줄 알았다. 그런데 도리어 이 어린 천사는 사형 결의안에 서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성모님이 어머니가 되시어 이 작은 영혼을 지켜 주시는 것이다.

이미 성인 품에 오른 현경련, 정정혜를 제외한 강완숙, 윤점혜, 윤운혜, 이순이, 권대례사, 이성례 등 여섯 분도 포함되어 있다. 최양업 신부의 모친인 이성례 마리아는 1925년 시복 심사에서 유보됐으나, 재심 끝에 무려 90년만에 복자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아드님인 최신부는 순교자가 아니라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가 별도로 요구되어 제외되었다. 기대했던 사제 모자의 복자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시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해박해(1791년)에서 정해박해(1827년)까지의 순교자 95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복 되고, 기해박해(1739년)의 순교자 중 10위는 1925년에 시복된 70위에 이어, 병인박해(1866년)의 순교자 중 19위는 1968년에 시복된 24위에 이어 추가로 시복 되는 것이다. 1839년 12월 10일(음력) 전주에서 순교하고 이번에 시복되는 홍재영, 오종례, 이봉금, 김조이(옥사), 등은 1925년 시복 청원명단에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기해박해 순교자 중에서 오직 서울출신 만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열(優劣)을 가린 것이 아니다. 다음은 ‘하느님의 종’ 홍낙민 루가 일가(一家)에 대해 기록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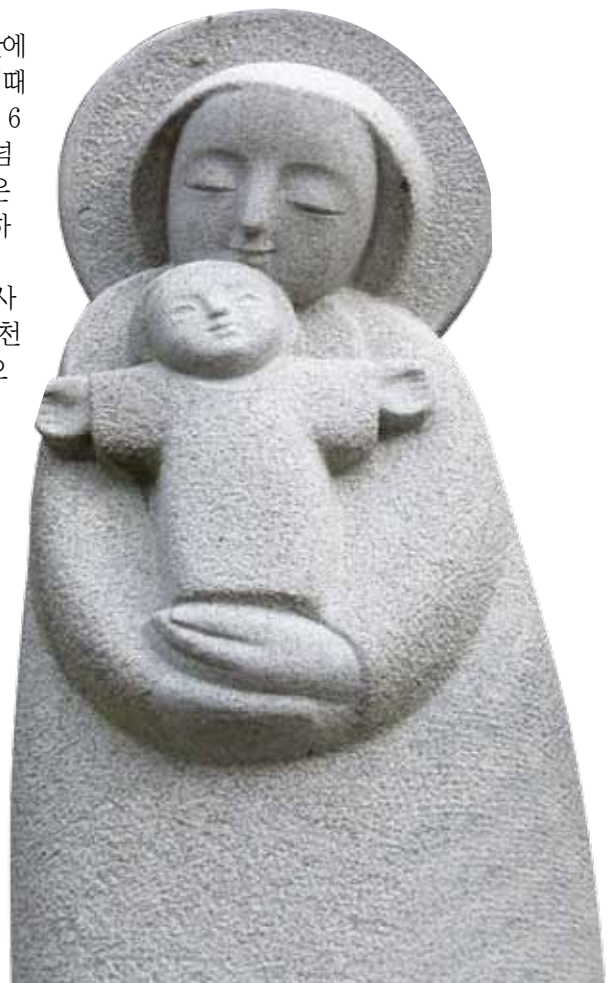
‘신선한 희망으로 부활’

어린이의 공공연한 처형을 두려워한 관에서는 11월 한밤중에 교수형을 가하니, 이때가 1839년 12월 5일(음력 10월 30일)에서 6일 사이로 당시 이봉금의 나이는 12세를 넘기지 못하였다. 이 작은 천사는 마중 나온 천상 가족들의 환호 속에 성모님 손잡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다.

가정에서 참 신앙 교육과 자녀의 참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준 김조이와 천주님에 대한 지순한 사랑과 의연한 신앙으로 충만한 이봉금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어 우리에게 신선한 희망으로 부활하고 있다.(조이는 과부나 나이 많은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시복 예정자 보충설명’(본보 1월호 3면 참조)

이제 시복 예정자 124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보기로 한다. 필자가 28회에 걸쳐 한국의 천주교회사를 기록하며 바람이 있었다면,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된 124위 순교자 모두가 복자(福者) 반열에 오르는 것이었다. 다행히 현재 이분들은 모두 시복 예정자로 올랐으며, 이 중에는 필자가 평소 애모(愛慕)하던 여덟 분의 여성 순교자 중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물맛이 알차습니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 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환형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살아 숨쉬는 공동체



4월 6일 사순 제 5주일
요한 11:3-7. 17-20. 33-45

질문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시련이나 위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 기도의 응답이 없어 절망했지만 주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리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들은 무엇입니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어쩌면 복음사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미리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는 42절의 말씀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마태 17,20; 21,21; 마르 11,22-23; 루카 17,5-6 참조). 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005년 사제품을 받고 2월 3일에 공동 본당 보좌 신부로 부임한 저는 3월 10일에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3월 12일 “흉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에 방사선 치료를 36번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보

름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을 하고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막막했던 4개월간의 투병생활을 마치고, 18개월간 요양을 하면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보고, 걷는 것 등 일상의 사소한 것들조차도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죽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저를 살려주신 하느님의 뜻을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자로를 살리신 것처럼...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마태 26,14-27

질문

1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얻은 은총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22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26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성체성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묵상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The Passion of the Christ)”인데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12시간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너무나 처절했던 주님의 수난 여정 앞에서 몸서리쳤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공관 복음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순서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해인 오늘은 마태오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겔세마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26,39)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의 힘이 아버지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철저히 홀로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수난 여정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 사도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유다의 상반된 모습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펼쳐질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비록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철저한 고독 속에 던져진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4월 20일 예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질문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활의 기쁜 체험이 있습니까?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 자신이 잘하는 일이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 경험이 있습니까?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품
9876 8282(빨리빨리)/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27 Rawson St. Epping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HEALTHCARE CLINIC
KIM'S HEALTHCARE CLINIC
•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 체중 관리 / 다이어트
•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S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 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Home Plus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품,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리드컴 제과점
Joseph's Bakery
10 Joseph St. Lidcombe (중앙식품 옆)
8084 8580 0431 523 157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아직도 주님의 현존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왜일까요?

목 상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니까? 오늘의 복음 나눔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전례력으로 1년 중에 가장 큰 축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부활의 기쁨을 팔일 동안 성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부활 팔일 축제 기간에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주님 부활의 첫 증거로 빈무덤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첫 증인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수난 길을 걷는 동안 당신 곁을 떠나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무덤까지 지키면서 당신 곁에 머물렀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시신에 얹매어 있던 그녀가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변화되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구원의 역사 현장인 이스라엘 성지들을 순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7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남아 있던 지식들이 부제반 성지순례(특별히 주님 무덤 성당 앞에서의 묵상)를 통하여 하나로 엮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4월 27일 부활 제 2주일
요한 20,19-31

질 문

19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 신앙생활 안에서 나를 두렵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현세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고해성사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27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목 상

부활 팔일 축제 기간에 들었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느님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인생의 목표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다면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신앙생활을 기쁘고 활기차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오감을 하느님을 향해 온전히 열어 놓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며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데, 나만 곁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뒤늦게라도 주님을 만나 뵈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산

김기덕 바오로

머언 산작은 절
은은한 종소리가
산허리를 감돌 때

밤꽃 필 무렵부터
진작 기다려온
산골동네 아이들이
가을 산에 들었다

단풍 숲에서
알밤 굶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을 산에 가득하다

소슬 바람 한 줄기
떠나버린 한 낮에
아이들 파아란 마음이
가을 하늘에 닿았다

다람쥐 겨울 나게
밤송이는 남겨 놓고
아이들 주머니엔
밤통이 가득하다

낙엽에 미끄러지며
산을 내려오는 아이들
짧은 해를 등에 지고
가을 빛에 물들었다

[편집자 주]

위의 동시는 호주 동아일보 2014년 신년문에 당선작으로써 9지구 김기덕 바오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호주 동아일보 신년문에 심사위원단(윤필립 시인, 박철 시인, 홍기돈 중앙대교수)은 심사 평에서 “가을 산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무들과 함께 밤을 좁던 어느 가을날의 풍경을 파스텔 그림처럼 담은 글이다.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마음과 자연 친화적인 시골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포착 하였으며,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독자가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훌륭하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예담
Ye Dam Rice Cake 禮

- 떡케익
- 영양떡
- 이바지/페백
- 달래떡
- 일반떡
- 선물세트

20년 전통의 솜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중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first national
REAL ESTATE | Strathfield

2013년 말 완공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대표전화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B7/23-25 Windsor Rd. Northmead



부활의 노래

연휴를 맞아 거리가 늦가을 단풍 날리듯 한산하다. 제법 비가 내리는 아침이다. 구름 뒤로 무지개도 살짝 얼굴을 내밀다 들어간다. 와이퍼를 움직여가며 운전하니 개운한 느낌이다. 젖어 가는 창밖 세상을 보니 마음도 촉촉해진다. 줄곧 내리는 가을비에 들뜬 초지가 부쩍이나 생기를 띠고 있다. 집에서 40여분 거리의 헬렌스빌 노천 온천이 또 하나의 쉼터가 되고부터 자연스레 그리로 발길이 향한다. 우뚝 선 팜트리와 온천 앞뜰에서 반긴다. 집 앞 뜰에도 팜트리가 시골 느티나무처럼 서 있어 편안한 느낌인데 이곳 온천도 비슷한 분위기라 좋다.

팜(Palm)이 갖는 의미가 한몫해서 더욱 자연스럽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군중들이 길가에 깔아 놓았던 게 종려나무 가지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이기도 하지만, 손바닥이란 뜻으로도 친숙하게 다가온다. 우리네 인생사도 보이지 않은 큰 손의 손바닥 위에서 쉬었다 가는 것이라니 싶다. 오늘 그 손바닥위에 초대받은 느낌이다. 대자연 하늘 바다 산 땅도 모두 큰 손바닥이다. 오늘은 온천 물에 몸 담고그 푸욱 쉬는 날이다.

평일엔 일상에 묻혀 생활하다가 가끔씩 이런 휴식을 갖다보면 새로운 충전, 회복이란 말이 머리에 맴돌곤 한다. 다시 회복이란 말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부활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 이란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다. 당신을 가둔 무덤의 돌을 치우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근 회복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입구를 막아놓은 고민 덩어리를 치우는 것이었다. 나를 가두는 장벽을 허물지 못해 빛을 볼 수가 없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거리느라 내속에 갇혀 지냈다.

오랜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바위덩어리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줄 알았다. 체면과 자존심의 바위 덩어리를 떨쳐내지 않고서는 헤어날 수 가 없었다. 어렵사리 떨쳐내고 보니 알량한 세상적 자기 욕심 덮개였다. 그게 나를 그렇게 움매일 줄이야. 큰 손바닥에 놓인 것을 잊으니 스스로 합리화 고집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남의 말 많은 세상에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판단되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게 바로 큰 바위 덩어리였다.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 덩어리를 겨우 한 뼘 밀어내니 내 옆에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들이 있었다. 내 편이었다. 마음이 하나씩 모아지니 방법이 나오고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통째로 들려졌다. 버렸다. 빛이 들어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돌이 치워졌다. 부활의 빛이었다.

세상이 보는 겉옷을 벗어야 온천에 들어올 수 있다. 수영복 하나 걸친 채 들어선 온천 물속이다. 세상이 다시 열린다. 내리던 비가 멎고 햇살이 빛난다. 하늘이 눈부시다. 물속에서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부리겠는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이다. 어깨와 뒷목에 뻣뻣했던 힘이 빠지고 있다. 말랑 말랑 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진만이 성공과 행복은 아니다. 때론 머무름도

기다림도 쉽다 필요하다. 이번 연휴엔 나를 되돌아보는 휴식을 하면서 회복과 부활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

“당신이 누군가의 동료라면 평가하지 말고, 그의 편이 되어 주어야.”(앙드레 말로). 이번 연휴를 맞으면서 가슴에 새겨진 글귀다. 이런 동료의 마음이 없다면 나를 가로 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는 결코 떨쳐 낼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도 결코 도움이 못된다. 먼저 상대방 마음과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과 도움을 찾으면 그에 맞는 눈높이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나오는 동떨어진 율법적 이면에서도 교과서적인 판단들이 무수히 나를 질타하기도 한다. 배려와 깊이가 없이 행하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남는다.

최근 들어 이민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럴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도 한다. 돈벌이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 입장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며칠 전 공항 가는 손님을 태우러 갔다가 타이어 펑크로 손님을 못 태웠다. 좁은 길 피약 벌아래서 스페어타이어를 바꿔끼느라 팜투성이에 유니폼도 엉망이 되었다. 나중에 타이어 샵에 들러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데 몹시 인상적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참 정성스레 일처리를 하여 주었다. 타이어를 바꾸고 스페어타이어도 수리를 잘 마쳤다. 추가로 스페어타이어 휠 안에 끼까만 숯 껌정 같은 때 덩어리를 쇠 브러시로 갈아내고 물로 씻어 닦아내고 말려 기름칠까지 해주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일 있을 때



손과 옷에 까맣게 묻지 말라고 새 타이어처럼 말끔히 그야말로 때 빼고 광내 주었다. 내 입장에서 일해 줘서 속이 시원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식의 앵무새 같은 얘기다. 다 남의 얘기다. 내 일이 아니라는 투다. 일이 생기면 먼저 내 입장에서 일손을 봐주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말하면 모두 자기편이 되어주기 마련이다. 진정한 프로는 살아남는다. 프로는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 남이 다 못한다 해도 다른 제 2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프로란 어쩌면 자기 분야에서 부활한 사람이다. 진정성이 바탕에 깔린 사람에게서만 우리나라는 기질이다. 이번 연휴에 만난 프로들이 참 고맙다.

온천욕을 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떠본다. 부활의 노래 소리가 한층 가볍고 맑게 들린다. 구름이 새 하얗고 하늘이 푸르다.

(백동흠 프란치스코)



사순과 부활에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사해 부근에서’

(저자: 엔도 슈사쿠 / 역자: 이석봉 / 출판: 바오로딸)



엔도 슈사쿠가 그리는 예수님 모습은 얼핏 보면 힘이 없고 무능력하여 마냥 슬프기만 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곧바로 누구나 치유해 주고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일본 가톨릭 문단의 대가 엔도 슈사쿠가 그리는 소설 속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고, 각각의 슬픈 인생을 사랑하며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드러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사람들의 슬픈 인생을 하나하나 지켜보았고 사랑하려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나

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가?’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이 세상의 불안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이들에게, 이 책은 특별히 사순절과 부활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초대한다.

<p>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p>	<table border="1"><tr><th colspan="2">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th></tr><tr><td>■ 특전미사</td><td>: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td></tr><tr><td>■ 주일미사</td><td>: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td></tr><tr><td>■ 시티미사</td><td>: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td></tr><tr><td>■ 평일미사</td><td>: 월 7:30pm / 화 7:00am / 수, 목, 금 9:30am, 7:30pm / 토 9:30am</td></tr><tr><td>■ 차량운행</td><td>: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td></tr><tr><td>■ 문 의</td><td>: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td></tr></table>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 목, 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p>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p>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 목, 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게가 몰려온다!
한진IT

-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 키폰, IP-PABX, 070전화
-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